

요약문

환경부(2012)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비하지 않는 시나리오에서는 210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누적피해비용이 2,80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연도별 경제적 피해로 환산하면 GDP의 3%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추진할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0조원으로 2100년까지 누적피해비용을 800조원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실행시기가 빠를수록 비용대비 피해감소 효과가 크고 기간과 관계없이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산출되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적응대책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 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2012년 12월 27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초지자체까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3년 이후 5년 단위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화천군을 포함한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013년 19개(세종시 포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상황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

화천군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에는 기후변화 현황분석과 RCP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근거한 기후변화 전망, 취약성평가 등을 통한 중점분야 선정 및 화천군 기후변화 적응 신성장 동력사업 계획 수립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한 화천군 기후변화적응 자문단이나 적응 정책협의체 운영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화천군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적응 분야별 실행계획을 담은 종합대책 수립을 하고자 하였다.

화천군 기후변화 현황 분석결과 연평균기온이 8.6℃로 강원도 평균인 8.9℃보다 0.3℃ 더 낮으며 화천군내 평균기온이 높은 지역은 9.3℃, 낮은 지역은 8.1℃로 작은 차이를 보이나 최고기온이 높은 지역은 15.8℃, 낮은 지역은 14.1℃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다. 연평균 최고기온 14.9℃, 연평균 최저기온 3.4℃로 평균 일교차는 11.5℃이며, 강원도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화천군의 열대야 일수는 0.1일, 폭염일수는 3.9일로 강원도 평균과 비슷하고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매우 적게 발생한다. 화천군내 지역별로 최고기온 차이는 크기 때문에 최고기온의 영향을 받는 폭염일수 차이도 지역별로 크며, 일 최고기온이 높은 하남면에서는 6일 넘게 발생한다. 화천읍, 간동면, 상서면에서는 열대야가 발생하지 않고 폭염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지역은 일최저기온이 낮은 상서면이다.

화천군 기후변화 전망분석 결과 강원도 내에서 기온이 낮은 지역으로 폭염, 열대야 발생률은 강원도 전체 평균보다 작을 것으로 예측되며, 화천군내 읍면별로도 기온의 큰 차이가 없고, 21세기 후반기에도 비슷한 정도(+4.9~+5.1)로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일최고기온은 읍·면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 현재 일최고기온이 높은 하남면, 간동면에서 폭염 발생이 빈번하며 앞으로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내면의 경우 높은 산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기온이 낮고, 그에 따라 미래 예측에서도 폭염과 열대야는 적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화천군 강수량 증가율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편이나 강원도 평균보다는 약간 높고 강수강도와 호우일수 증가도 강원도 평균보다는 높아 기온보다는 강수로 인한 영향이 조금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강도의 증가는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상서면에서 크게 나타났고, 호우일수의 증가는 간동면에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행할 경우 화천군의 21세기 후반기 기온상승(+2.3℃)은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현재수준으로 유지하였을 경우(+5.0℃)에 비해 온도 상승이 절반 정도에 그치며, 강수량 증가정도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행여부와 크게 상관없이 증가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효과는 폭염과 열대야와 같은 극한기후에서 더욱 두드러져, 폭염일수는 21세기 후반기 24.6일에서 4.3일로 1/6수준으로 증가속도가 감소하며, 열대야도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경우 19.8일 증가에서 4.5일 증가로 1/4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열대야보다는 폭염에 의한 영향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강도와 호우일수가 증가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경우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강수예측에서 불확실성이 큼을 알 수 있다.

화천군의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피해 조사결과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감염병은 총 294건으로 중 말라리아가 2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쯤쯤가무시증 22건, 신증후군출혈열 7건, 렙토스피라증과 일본뇌염이 각각 1건이었다. 소방방재청에서 제공한 재해연보를 통하여 지난 20년(1990~2010)동안의 화천군 자연재해 피해규모를 살펴보면 홍수로 인한 피해가 1,658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금액을 기록하였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70억 7천만 원, 폭설로 인한 피해가 11억 8천만 원이었다. 2001년~2012년간 산림병해충 발생면적은 총 3,771 ha이었으며 방제면적은 3,913 ha 이었다. 연간 평균 병해충 발생면적과 방제면적은 각각 314 ha, 326 ha 이었으며, 2011년에 가장 많이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였다. 2001년~2012년간 화천군의 산불발생건수는 2009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5건이 발생하였고 2012년에서 5건, 2011년 3건이 발생하였다. 피해면적은 2011년에 가장 많은 3.8 ha가 산불로 소실되었고 5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한 2009년에 3.15 ha의 산림소실이 발생하였다.

화천군의 기후변화 적응분야는 9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9개 분야(관광, 건강, 재해, 농업, 산림, 수자원, 생태계, 적응산업, 인식제고) 중 취약성 평가는 관광, 적응산업, 인식제고 분야를 제외한 6개 분야(건강, 재해, 농업, 산림, 수자원, 생태계)에 대해 평가하였다.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위해서 국립환경과학원(2013)에서 제공하는 LCCGIS를 활용하였으며, 화천군은 한파에 의한 건강취약성, 폭설에 의한 기반시설의 취약성, 산불에 의한 취약성, 이수의 취약성, 곤충의 취약성 분야가 중점 취약분야이며 향후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화천군의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화천군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인지 정도와 기후변화에 대한 체감 정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화천군에 사는 일반인과 공무원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일반인은 화천군 내 5개 읍·면에 거주하는 인구를 고려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공무원은 화천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식도 조사 결과 화천군민은 재해, 건강, 수자원 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재해, 건강, 농업, 관광 분야의 적응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군의 기후변화 분야별 주요 적응 이슈와 함께 분야별 기후변화에 따른 화천군 SWOT분석을 통해 화천군의 기후변화 중점분야 및 중점 추진사업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화천군은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고, 많은 군부대가 배치되어 있고 산림이 풍부하고 대부분의 지형이 산지로 이에 대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춘천댐 상류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지역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화천산천어 축제와 화천토마토 축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들이 잘 알려져 있고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활용할 기회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여 화천군의 강점, 약점, 기회 및 위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화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비전 및 목표 설정을 위해 우선 화천군 군정 방향과 캐치프레이즈, 상징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화천군 군정방향과 더불어 상위계획인 국가 및 강원도의 비전 및 목표를 참조하고, 본 연구 결과인 다양한 화천군의 기후변화 관련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화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였다. 화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기후변화 시대 화천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화천군에 특화된 적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전절에서 고려한 사항과 더불어 적응 정책협의체회의 등을 통해 그 비전을 ‘기후변화 적응형 에코파라다이스 화천 구축’으로 수립하고, 비전과 더불어 목표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제거와 화천군의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을 확보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라 지역 환경자원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로 농업, 산림, 수자원, 생태계 분야 세부계획들이 포함된다. 기후변화 진행에 있어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교육·홍보 내용 등이 포함되는 성장 적응전략에는 관광, 적응산업, 인식제고 분야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의 다양한 위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전략으로 안전 적응전략을 제시하였고, 안전 적응에는 건강분야와 재해분야가 포함되었다.

화천군 최근 3년간(2011~2013) 주요업무보고 분석과 2014년 화천군 시책사업을 바탕으로 화천군 분야별 적응대책 및 세부대책사업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사업은 화천군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중간보고 이후 적응 정책협의체내 실과담당자 및 자문단회의를 통해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가하고 추진이 불가능 하거나 기후변화적응 세부대책에 포함이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한 후 확정하였다. 화천군의 적응대책은 상위계획인 강원도(2012) 계획의 틀에서 화천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여 분류하였다.

세부사업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분야별로는 재해(29%), 관광(28%), 산림(27%)의 예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화천군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사업으로 지역경제발전에 중점투자를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위험의 발생빈도가 높아져 재해분야에 많은 예산을 계획한 결과이다. 그리고 화천의 지형적 특성상 산림이 발달해 있어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분야의 예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화천군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위해 선정된 세부시행계획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1~2015)」의 세부사업과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2~2016)」의 세부사업과 비교하여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정부에서는 재난과 농업에, 강원도에서는 농업과 물관리에 큰 비중을 둔 반면 화천군의 경우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관광산업에 큰 비중을 두었다.

화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내 세부사업에 대해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성 분석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의 편익을 추정하는 것으로 단순한 행정작용이나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아닌 것은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화천군의 기후변화적응사업 중 교육이나 홍보사업, 행정체계구축(복지서비스체계구축 방재기반구축), 이천지출(농가소득 보전), 일반적인 행정작용(식품 안전성 감시, 전염병 관리, 시설운영, 기금관리, 설계 및 감리 등), 시설물 정비나 개량사업은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자체가 불확실한 사업들이다. 따라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사업들은 제외하였으며, 최종 20개 사업에 대해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화천군의 기후변화적응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산출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NPV(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고, B/C Ratio(비용편익비)가 1보다 크며, IRR(내부수익률)이 할인율(5.5%)보다 높게 산출되어 사업의 투자 가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화천군의 기후변화적응사업에 대한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이에 의할 때 관광, 건강, 산림, 적응산업 등의 분야에서는 경제성이 높게 산출된 반면 재해, 농업, 생태계 등에서는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다분히 해당 분야 연구 사례의 풍부성, 각 사업 내용의 구체성 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다음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분야별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지, 타 분야에 비하여 건강이나 관광 분야의 편익이 높다는 점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

화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의 이행 추진 기반을 위한 기구로서 화천군 기후변화 적응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다. 협의체는 계획수립 기간 뿐 아니라 향후 5년간(2018년까지) 계획 이행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계획의 이행 추진 기반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와 더불어, SWOT분석, 인식도 조사, 예산분석, 분야별 경제성 분석, 상위계획과의 일치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방법별 우선순위와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분석 자료, 분야별 피해사례 조사 등을 바탕으로 화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상 중점추진 분야 선정에 적응 정책협의체 회의 및 군 정책결정자 면담 등 다양한 의견과 여건들을 고려하여 관광, 생태계, 산림 분야를 화천군의 중점 적응대책 분야로 선정하였다.

분야별 중점추진 과제는 중점추진분야로 선정된 관광, 산림, 생태계를 아우르는 신성장 동력산업에서 제안한 사업을 이후 화천군의 적응 중점추진 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화천군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화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수립 1차 시범사업으로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시점에서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수립에 있어 중요한 부서간 업무 협조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진에서 제시하는 신규사업에 대한 추진 당위성 등에 대한 동의가 미비하여 초기 계획은 기

존사업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화천군 담당공무원들의 적응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는 상당부분 실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적응계획 수립의 또 하나의 주요한 결과일 것이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기후변화 교육 사업을 계획하여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자발적 신규 기후변화 적응사업 발굴이나, 강원도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 기후변화 적응사업 발굴 DB를 활용하여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내 적응 정책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신규사업 추가를 통해 시범사업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현재 국가단위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국가계획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향후 광역지자체 평가체계 구축 이후 기초지자체 평가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는 이행·평가, 모니터링 계획과 관련한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다만 현재 법률상 계획의 수정·보완이 적응 정책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가능함으로 향후 국가의 평가체계 구축 이후 적응 정책협의체를 통해 계획의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화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수립에 있어 법정계획 범위내 포함되는 사항에 더하여 화천군에서는 화천군의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을 본 연구를 통해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화천군민 및 공무원들의 설문 조사 뿐 아니라, 화천군의 인구 현황과 지형 등에 대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사항을 고려할 때, 화천군에서 시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후변화 적응 신성장 산업은 생태관광 산업으로 판단되었다. 생태관광산업은 지역 고유의 자연자원을 이용하며,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와 환경 보호를 원하는 화천군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도 부합된다. 하지만 이러한 생태관광객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화천군의 자연자원을 파악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업은 산림분야에서 통일 및 남북관계 변화를 대비한 아고산대 식물 종자 은행 설립 사업과 산약초 마을 브랜드 활성화의 2개 사업이었으며, 관광분야에서 생태 스카이워크를 포함한 총 8개의 사업들을 제언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 오폐수 관리를 통한 화천 수생태 복원 사업 등의 1개 사업을 제언했으며, 기타분야에는 생물다양성 마을 조성을 포함하여 5개의 사업을 제언하여 총 3개 분야에서 16개 사업을 제언했다. 그 중 화천군에서 선정한 사업은 통일 및 남북관계 변화를 대비한 아고산대 식물 종자 은행 설립과 화천 수생태 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 그리고 오폐수 관리를 통한 화천 수생태

복원 사업 등 총 3개 사업 등이 있다.

화천군의 자연 환경을 고려했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생태관광의 형태는 ‘수생태관광’이다. 화천군 수생태 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서의 핵심 목표 및 전략은 수생태 환경 보호 및 관리와 수생태 관광 사업 육성, 수생태 관광 시설 개발 그리고 지역 사회 발전 등 크게 4개 분야를 강조하고 있다.

화천군 수생태 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핵심 목표 및 전략사업을 기초로 하여 수생태 관광 체험 및 프로그램(야생동물 생태공원, 물고기잡기 체험, 배타기 체험, 양어장체험)과 수생태 교육(일반교육, 영재교육), 수계 주변을 이용한 카라반 파크 조성 및 먹거리 단지 조성, 반딧불이 수생태 마을 조성 등 크게 5개 분야의 사업안들을 구성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 사업 내용들을 기본으로 하여 화천군 수계 주변에 수생태 관광 사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임의 선정하여 루트를 개발했다.

화천군은 산골을 따라 수계가 잘 발달되어있으나, 다수의 군관련 시설물 및 축사 등에서 유출되는 오폐수로 인해 수생태관광사업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오폐수관리를 통해 화천군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수생태복원 기반을 조성하고 수생태관광지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 산천어축제 등 친환경적 이미지 홍보가 잘 되어있는 지자체인 화천군의 경우, 수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생물·생태적(Bio·Ecological integrity) 수질복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수생태 복원사업에서 가장 적합하다. 수질개선사업은 크게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제, 비점오염원 관리로 나눌 수 있다. 화천군의 경우 수질오염의 체계적인 원인분석은 물론이고 수생태계의 보전계획이나 총량관리제 등에 관한 구체적 조사나 지자체특성에 맞는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있지는 못한 실정이지만, 화천군 수계의 주요 오염원으로는 군부대로부터 수계로의 유출물, 축산분뇨, 화학 살균제에 의존한 토양중금속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들로부터 수질을 정화하고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핵심 실행 사항으로는 물관리 토탈솔루션 구축을 비롯해 친환경 물공급 시스템구축, 오폐수의 청정수화 및 수계의 자기회복력향상과 중금속저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북한 산림지역의 약 23%는 기후변화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고산대(Subalpine zone)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다(공우석, 1995; 1995; 이동근, 김재욱, 2007). 아고산대 지역은 산악의 수직적 생활대 또는 식생대의 하나로 산지대(山地帶)와 고산대 사이, 즉 산지대의 상한에서 산림한계까지의 부분이며, 일반적으로 고채목이 섞인 상록침엽수림대로 대표된다(강영희, 2008). 특히 좁술송나무, 솔송나무, 가문비나무, 낙엽송, 분비나

무 등의 침엽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 복구를 위해서는 아고산대에 주로 분포하는 식생을 이용한 녹화 사업이 필요하며 화천군 아고산대 식물 종자은행 설립은 이러한 아고산대 식물들을 이용하여 녹화 사업을 하기 위한 종자 자원들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천군은 행정구역 면적 대비 산지의 비율이 약 85%로 평균 해발고도 467m의 산지가 분포하고 있다. 평균 해발고도는 476m로 최저 79m에서 최고 1,439m의 지형이 분포하고 있다. 이중 일반적으로 아고산대에 해당하는 해발고도 700m ~ 1,400m 지역은 화천군 전체면적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화천군의 연평균 기온과 상대습도는 각각 11.0℃, 69.4%로(화천군, 2012) 북한의 아고산대 산림지역과 유사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거리상으로 북한과 매우 가까우므로 북한과 상업적 교류가 있을 시 유통비 절감 등의 효과가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우수하다. 따라서 만약 국내에서 북한의 산림 녹화사업이 본격화 된다면, 화천군은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북한 지역에서 생육이 적합한 종자를 재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 본 사업에서 제시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UN FAO로부터 ‘아고산대 종자 식물 저장소’ 인증과 아고산대 식물 저장고 설립, 아고산대 식물 종자은행 연구소 활성화, 화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아고산대 특화 식물 선정 및 특화 식물을 이용한 특산품 등의 개발, 북한지역 아고산대 전반적인 식물상 조사와 식물 종자 확보, 아고산대 묘포장 운영 그리고 화천군 아고산대 식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전시관 운영 등이 있다.